

농산업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자기결정성 정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변은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허철무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농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기결정성정도를 조절변수로 하여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창업환경은 인지된지원과 인지된장벽으로 창업역량은 여러 가지 변인 중에서 농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사업계획서로 설정하였다. 농산업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지 253부를 SPSS v25.0과 Process macro v4.2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창업환경의 인지된지원과 인지된장벽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창업역량의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환경의 인지된지원 및 인지된장벽과 농산업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결정의 수준은 창업환경과 창업의도 사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의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와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정(+)의 방향으로 강해지게 하는 강화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의사소통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가 약해지는 완화 작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탐색과 새로운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포함된 조건부과정모형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주제어: 농산업 창업, 창업환경, 창업역량, 자기결정성정도, 창업의도

1. 서론

최근 농산업은 전통적 농업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결합된 6차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농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사자(인력) 수나 농업 면적 증가와 같은 양적인 요인과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산업 기술 개발이나 가공 및 유통 등 농산물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질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중 편지은(2022)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농업·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 경영 위기와 함께 농촌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기준, 경영주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농가 비율은 77.3%에 달했으며,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2세였다.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46.8%에 이르는데, 같은 시기 전국 고령화율이 17.1%인 것과 비교하면 2.7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농가 수는 103만 1천 가구, 농가 인구는 221만 5천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도와 비교하여 농가

수는 10.4%, 농가인구는 23.9%가 감소했다. 또한, 농어업 취업자는 2021년 기준 145.8만 명으로 1976년 551.4만 명보다 73.6%가 감소하였다. 2017년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기준 127.3만 명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증가세는 다소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되며 농가의 일손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러한 농업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는 관행 농업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농업의 탄소중립, 기후위기적응,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등 미래농업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현재 수준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더 나아가 미래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도 농업인력 문제해결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에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현 정부 역시 크게 4가지 방향성의 농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 주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dbsk0101@nate.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cmheo@hoseo.edu

· 투고일: 2023-05-03

· 1차 수정일: 2023-06-11

· 2차 수정일: 2023-06-26

· 게재확정일: 2023-08-28

농산업을 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농촌 생활의 질을 높이고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고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농산업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도하에 농산업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실제로 농산업을 지속적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일반적으로 벤처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방향으로 국가의 기술력과 경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핵심적인 역할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산업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벤처기업이 등장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벤처기업이 가장 잘 활성화된 나라인 미국의 사례를 연구한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

Lovgren et al.(2020)은 새로운 벤처 창출은 사회에 가치가 있지만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상당한 공공 자금이 할당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광범위하게 EAP(기업가 지원 프로그램)라고 불리며, 이러한 EAP에 관한 연구가 일반적인 EAP에 대한 분석은 널리 퍼져 있는 반면, 농식품 EAP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고 하였다. 그들은 현재까지 농식품 EAP지원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단 두 건에 불과했으며(Peake & Marshall(2009), Cranwell et al.(2005), Lovgren et al.(2020)),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EAP 지원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분석은 지원을 받은 기업가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주관적인 성과 측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따라서 농식품 EAP가 기업가에게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지 분석하고자 미시간 주립대(MSU) 제품 센터의 지원이 467명의 창업가의 벤처 평가, 리소스 보유자 및 거래 파트너에 대한 지각된 정당성,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농식품 EAP 지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 아이디어의 창업을 방지하고, 창업한 벤처의 생존율을 높이며, 거래 파트너에 대한 기업가의 정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표적 EAP가 농식품 산업에서 기업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 접근 방식이며, 특히 초기 기업가를 지원하는 데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정부의 지원은 신규 벤처창업을 등장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리를 잡은 벤처기업 농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농산업을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청년농육성, 스마트 농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지원 및 확대하고 있지만, 농업 분야 규제 및 구조적 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청년농 1만명 육성을 내걸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현 정부가 특단의 대책 없이 청년농 3만명을 배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 역시 존재하여, 단순히 청년농 3만명을 유입시

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정착까지 이어지도록 충분히 구체화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보아, 단순히 신규 벤처기업을 늘리고, 농산업 종사자를 유입시키는 것만이 주어진 과업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나 유입 동기 등을 적절히 고려하고, 유입된 종사자가(새롭게 창업한 벤처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적인 과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Mishra & El-Osta(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농산업을 지속 성장 가능성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들은 미국의 농산업 종사자들의 자녀가 가업을 이어 승계농이 되는 비율이 타 산업의 자영업자들의 자녀가 가업을 이어 자영업자가 되는 비율보다 5배가 높았으나, 농산업 종사자의 자녀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농산업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농산업이 아닌 산업을 택한다는 점과 그 외 농산업이 쇠퇴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를 언급하며, 농산업 종사자들의 진입 요인을 연구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우선 비-농산업을 일자리를 가진 개인이 농산업에 종사하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농산업에 진입하기 전에 비-농산업을 근무 경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첫째, 가업승계농인 경우, 둘째, 부수입원으로서 농산업 창업을 한 경우, 셋째, 주 수입원으로서 농산업 창업을 한 경우에 따라 각각 농업인이 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그들은 연구를 통해 나이가 많을수록 가업 승계, 추가 소득, 주 소득원 등을 이유로 농산업 밖에서 일하다가 또는 일하면서 농산업에 진입한 비율이 낮았다. 또한 고학력자일수록 농산업에 종사하기 전에 최근에 혹은 과거에 비-농산업에서 종사했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특히 대학원 학위를 가진 경우에는 주 수입원을 위해 농산업에 진입하기보단 부수입을 위해 농산업에 진입한 등의 다양한 결과를 얻어내었다. 또한 해당 연구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이 노동자들을 다시 농촌으로 유인하고 농촌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연구가 비-농산업 종사자의 농산업 유입 역할을 탐구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다양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농산업 종사자의 유입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는 농산업 유입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농산업 지속가능성 방안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업을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농산업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성. 둘째, 단순히 1차 산업인 생산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삶을 영위하는 귀촌이 증가하며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 셋째,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 적합한 농산업 종사자 유입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넷째, 단순히 청년농 유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규제 및 구조적 변화를 통해 정착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등이 존재한다는 점. 이처럼 다양한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을 때, 농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업 유입을 증가시키고 농산업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정책, 지원제도 등)을 신설하고 기존의 규제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향성을 연구할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 산업과 구별되는 농산업의 창업환경과 예비창업자의 역량 중 어떤 요인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자기결정성 정도의 조절효과 여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창업 유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과 농산업 지속가능성 방안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농창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는 후속 연구의 기틀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환경

사람들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환경요인에 둘러싸여 있으며 기업가 개인의 특성들은 이러한 환경요인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창업이라는 과정은 기업가 개인의 특성과 그를 둘러싼 환경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양준환, 2015).

이러한 창업환경 요인들은 연구의 주제나 연구자에 따라 분류하고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참고한 창업의도를 관찰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 중 Luthje & Franke(2003)는 창업환경을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이라고 표현하며 기업가적 의도 모델에 통합하였다.

그리고 창업환경을 인지된 장벽과 인지된 지원으로 구분하고 개인의 특성과 기업가정신을 대하는 태도와는 별개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창업환경은 기업가정신을 대하는 태도와 별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나 기업가정신을 대하는 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창업환경을 부정적으로(지원이 적고 장벽이 많다고) 인지할수록 창업의도가 약해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업 예비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특성 중 하나인 창업역량과 별개로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Luthje & Franke(2003)의 연구에 근거하여 세부 요인을 설정하였다.

2.1.1. 인지된 지원과 장벽

Luthje & Franke(2003)는 창업환경을 인지된 지원과 인지된 장벽으로 세분하면서도 자세한 조작적 정의나 하위 요소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론과 가설, 설문 내용 등을 통해 그들의 관점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우선, 그들의 연구는 MIT 학생들을 창업으로 유도하기 적합한 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향성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따라서, 창업환경은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예비 창업자가 창업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지한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인프라와 네트워크, 시스템의 세부적인 요소로는 교육과 컨설팅, 정책과 법률,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 자금 확보와 신사업 확장의 용이성이 언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uthje & Franke(2003)의 연구를 중심으로 조영조·이보영(2016)과 김나량 외(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창업환경을 ‘예비창업자의 개인적인 창업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와 별개로, 예비창업자가 환경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2.2. 창업역량

역량이라는 용어는 경영학 문헌에서 많이 언급되었고 연구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역량은 원래 교육의 관점에서 수습 교사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Boyatzis & Richard(1982)의 주도하에 경영의 측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우수한 특성을 구별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원의 개인적 특성, 기술, 지식 및 동기를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Boyatzis & Richard(1982)는 역량을 동기와 특성, 사회적 역할과 자아개념, 그리고 역할 전환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영국에서는 이와 달리 역량을 특정 근무지의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업무 혹은 노동자가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나 결과물과 같은 행동으로 설명했다(Mitchelmore & Rowley, 2010).

이외에도 최근 국내의 연구자 신향숙(2021)은 창업자의 역량은 직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으로 창업자 개인의 경험, 훈련, 교육, 가족 배경 및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성격 특성, 기술 및 지식을 포함하는 상위수준의 특성으로 간주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창업역량에 대한 해석은 시대나 국가, 연구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산업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창의성, 문제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마케팅 역량, 사업계획서 작성 역량을 선정하여 창업의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로는 본 연구에서 하위변수 선정을 위해 참고하거나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대한 설명이다. 창업역량과 관련한 연구 동향은 <표 1>과 같다.

<표 1> 창업역량의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대상
이인숙 외 (2013)	창업역량을 창업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창업역량은 창업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함.	서울, 경기지역 5개 대학의 조리 및 외식 전공 대학생
최대수 성장수 (2017)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술적역량(IT역량), 비기술적역량(창의성 역량, 사회적 역량, 시장인지 역량)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IT역량과 창의적 역량, 시장인지 역량은 창업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을 확인함.	수도권소재 D대학과 J대학의 학생 340명
강병승 (2020)	창업역량을 경영 역량, 기업가 역량, 대인관계 역량으로 구분, 각각 '창업에 필요한 관리, 기술, 및 마케팅 능력', '혁신적이고 위험을 감수하여 창업할 수 있는 성향',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뛰어난 대인관계 능력'으로 정의함. 창업역량이 직접적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영향을 일부 미치며,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퇴직 및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40~65세까지의 시니어
양경애 하규수 (2020)	창업역량을 창업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초기창업가가 사셔야 할 역량의 정도라고 정의하고, 중장년층 특성에 맞는 역량으로 정보역량, 경험역량, 네트워크역량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는데, 정보역량, 경험역량, 네트워크역량이 창업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서울시 및 경기도 거주 성인 40-65세 중장년층 남녀
김영태 (2021)	창업자의 역량을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40대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설문하고 232부를 사용
이윤석 (2021)	개인이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문제해결역량, 의사소통역량, 네트워크역량, 팀빌딩역량으로 세분하였음. 그러나 기업가적 역량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기업가적 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기업가적 역량이 기업가적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매개하였음.	전국 단위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한 대학생
신향숙 (2021)	창업역량을 개인역량(리더십,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의사결정)과 실무역량(경영전략, 마케팅, 사업계획서)으로 구분, 분석 결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정신을 매개하여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40~65세 미만까지의 액티브 시니어 연령층
김정수 (2022)	창업자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하고 창업자역량의 하위변인 중에서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으로 구분하고 연구하였는데,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
홍정가 허철무 (2022)	디지털미디어활용역량의 기기활용과 커뮤니케이션활용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활용역량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기기 활용 역량은 비유의적임을 확인함.	시니어를 대상으로 설문 실시

최근 5개년 간 창업역량과 창업의도를 주제로 한 연구를 확인한 결과 의사소통, 네트워크, 관계 형성과 같이 대인관계와 밀접한 역량이 창업역량의 하위요인으로 주되게 채택되었다. 또한 창업역량을 창의성이나 위험감수성, 문제해결과 같은 개인의 내재적인 영역을 창업자 개인의 역량으로 분류하거나, 사업계획서 작성 역량, 경영 및 마케팅 역량과 같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거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기술이나 실무 영역으로 분류하여 하위요인으로 세분하여 설정하는 등의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업 창업과 관련된 최근 연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창업역량에서 요구되고 있는 변인들을 선정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병문(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의 농산업 창업에서 주되게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현재의 농산업에서는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에게 어떤 역량을 교육시키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에서 창업교육은 산업경쟁력, 지역경쟁력, 매출 역량, 현장 대응 역량 등의 강화를 목표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지의 의문이 있다. 교육 내용으로 사업계획, 자금, 회계, 마케팅 교육은 제공되나 창업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교육 전문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귀농·귀촌자, 승계농, 청년창업농,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 등은 재배·생산 중심의 기술 중심의 교육을 제공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기업 성장에 요구되는 체계적인 창업교육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광범위한 농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역량의 하위변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유통을 포함하는 마케팅 역량이 농산업 창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관리 역량을 포함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셋째, 아이템 개발(선정)부터,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까지 경영 전반의 역량과 그 교육의 체계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를 기존 창업역량 중에서 사업계획서 역량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향숙(2021)의 연구에 따르면 사업계획서 작성 역량은 시장의 사업타당성분석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과 유사하며, 잘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투자자들로부터 풍부한 자금을 받도록 만들어 준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엔 달성될 수 있는 사업 목적과 전략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Karlsson & Honig, 2009; Watson & McGowan, 2019).

Teixeira & Pereira(2019)는 기업가는 비기업가와 비교하여 특정 사업계획 재무도구, 즉 현금 흐름표 및 대차대조표와 사업 계획 차원, 특히 회사 및 제품·서비스, 마케팅 및 판매 계획, 재무 분석 설명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사업계획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넷째, 전반적인 창업역량의 부족함이 기업가정신, 직업의식에 대한 아쉬움이 언급되었는데, 설병문(2020)의 연구의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중 하나는, 농산물 생산과 판매 중심의 전통적 농업창업에서 농산업이 성장하며 농산물 생산과 단순가공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업하는 현상, 즉 6차 산업농가가 증가하며, 농창업자들이 창업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의 해결이 기술, 자금, 판로개척 중심의 접근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고 이에 핵심역량으로 대두되고 관련 교육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하는 역량이 기업가정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연구 본문의 네 번째 특성에서 기업가정신 역량 자체를 도출하여 채택할 수 있으나, 기업가정신은 연구자나

연구 주제에 따라 본문에서 언급된 기술, 자금, 판로개척과 관련된 역량이나 다른 특성에서 도출된 마케팅, 의사소통, 사업계획서 역량을 포함할 수 있는 광의적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역량이 중복되지 않고 구별될 수 있도록 기업이 정신의 세부 요인 중에서도 대표적이면서 기존에 채택된 하위요인과 차별되는 창의성과 문제해결을 채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농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창업자의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 그리고 최근 5개년간 가장 주요하게 연구된 역량이자 농산업 창업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의사소통 그리고 창업과 창업 이후 경영 과정에 핵심적으로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농산업 창업교육에서 주목된 사업계획서, 마케팅 역량까지 총 5가지의 역량들을 창업역량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2.3. 자기결정성 정도

개인의 행동과 성격 발달에 대한 자기조절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은, Ryan & Deci에 의해 체계화된 개념으로, 인간의 동기를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동기부여에 기초하여 활동한다고 간주하는 내재적 동기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시이론(Macro-Theory)이다.

Ryan & Deci(2000)에 따르면,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CET)은 내재적 동기의 가변성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SDT의 하위 이론으로, 내재적 동기는 개인이 내재적 동기를 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환경에 있을 때 개인에게 내재적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는 즉, 내재적 동기는 환경이 허락할 때 발현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Ryan & Deci는 내재적 동기를 이를 촉진하는 요인인 사회적, 환경적(혹은 맥락적; context) 요인과 내재적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자기결정성은 1985년 Ryan & Deci가 저서에서 언급한 인지평가이론, 유기적통합이론, 인과지향성이론을 기반으로 시간이 흐르며 기본심리욕구이론, 목표내용이론, 관계동기이론이 추가되며 체계화한 미니이론(Mini-Theory)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미니이론들은 내재적 동기(자기결정성)를 현상이나 상황에 따라 설명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자기결정성은 후속 연구자와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연구 시기 등에 따라, Ryan & Deci가 체계화한 미니이론(Mini-Theory)의 개수를 4개 혹은 5개, 6개로 보며, 모든 미니이론을 적용하여 자기결정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미니이론을 채택하여 설명한다.

인지평가이론의 프레임워크는 사회적 환경이 사람들의 타고난 심리적 욕구를 지원하거나 방해함으로써 내재적 동기를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내재적 동기와 자율성 및 유능감에 대한 욕구 충족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이 명

확하게 입증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적어도 원본적인 의미에서 관계성에 대한 욕구 충족도 내재적 동기에 중요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각각 개별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내재적 동기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세 욕구가 모두 종합적으로 충족되었을 때 내재적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외부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정도 차이가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지평가이론을 중심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을 본 연구의 조절효과로 채택할 경우, 농산업 창업 환경과 예비창업자 개인의 농창업역량 요인이 창업의도라는 내재적 동기의 관계성을 연구하려는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인지평가이론은 Ryan & Deci(2000)가 퍼즐과 현금 보상을 사용한 실험을 통해 내재적 동기가 환경(외부의 사건)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영향을 받는 요인을 밝혀내며 정립되었다. 실험 결과 내재적 동기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외부 사건의 객관적인 특성이 아닌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경험에 따라 외부 사건을 인지하는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그들은 인지평가이론의 구성 요인으로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를 제시했다. 이때 기본 욕구란 생리적 욕구이든 심리적 욕구이든 간에 충족되면 건강과 웰빙으로 이어지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질병과 불행은 초래하는 활력 상태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지속적인 eudaimonia(행복이나 웰빙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그리고 관계성(relatedness)에 대한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표현하며 자율성과 유능감, 관계성을 소개하였다. 즉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기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내재적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

또한 환경이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각 요인의 의미나 동기와의 연관성, 요인 간의 관계성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우선, 자율성은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이다. 유능감은 사람들이 자신이 유능하고자 하는 욕구로 개인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발휘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한다(Ryan & Deci, 2000). 셋째, 관계성은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는다느 느낌이며, 다른 개인들과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이다(김성환 외, 2015).

연구에 따르면 행동 중에 유능감을 느끼게 하는 사회적 맥락적 사건(예: 피드백, 커뮤니케이션, 보상)이 해당 행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적의 도전, 효과성을 촉진하는 피드백, 부정적인 평가로부터의 자유가 모두 내재적 동기를 촉진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성과 피드백은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반면 부정적인 성과 피드백은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지각된 역량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능감은 귀인적 관점에서 인지된 인과관계의 근원 혹은 자율성을 동반하지 못한다면 즉, 스스로 결정한 경험을 통해 유능감을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향상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유능감과 자율성을 동시에 즉각적인 환경적 지원 혹은 인지된 유능감과 자율성을 위한 사전의 발달적 지원의 성과인 개인의 역량을 유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당시에 환경적 사건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서 자율성은 유능감보다는 통제와 연결되어(대조되어) 연구되었는데, 이때 외적 보상이 내재적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지된 인과관계의 근원이 외부에 있는 경우 자율성이 감소하여 내재적 동기를 저해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유형적 보상뿐만 아니라 위협, 마감일, 지시, 압박 평가, 부과된 목표도 유형적 보상과 마찬가지로 인지된 인과관계의 근원이 외부로 향하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선택권, 감정의 인정, 자기 주도적 기회는 사람들에게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처럼 자율성과 유능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재적 동기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던 것처럼, 관계성 역시 내재적 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에 따르면, 경계심과 관계성에 의한 환경에서도 내재적 동기 부여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인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자율성과 유능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과 별개로 내재적 동기 부여가 낮아졌다. 따라서 Ryan & Deci(2000)는 내재적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안전한 대인관계 기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양질의 창업 교육, 창업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가 창업자의 동기와 의도, 창업 실행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에 자기결정성의 미니이론 중 필요한 이론을 채택하여 자기결정성을 창업과 연관지어 연구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인지평가이론은 환경에 의한 내재적 동기의 가변성을 다루는 만큼, 창업자의 주변 환경이나 국가, 대학 등 사회적 환경이 창업 동기와 의도, 실행의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많은 연구자가 채택하여 연구했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연구 동향에서는 창업의도와 자기결정성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 자체가 많이 줄어든 추세이며, 특히 그중에서도, 농산업 창업 등을 키워드를 추가하면 선행 연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농업 자체를 자기결정성과 연관 지은 연구가 최근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사한 연구 모델에서는 선행 연구가 다양하게 존재하나 농산업 창업을 대상으로 한 모델은 대한민국의 최신 현황을 반영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특히 연구의 시사점이나 의의를 가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 연구 동향과 내재적 동기를 환경과 연관 짓는 인지평가이론의 특성, 본 연구의 주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결정성 이론의 다양한 미니이론 중 인지평가이론을 적용하여 자기결정성 정도가 창업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때, 자기결정성 정도의 하위 변수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설정하였으나, 세 욕구가 모두 충족되어야 내재적 동기를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욕구에 따라 세부 가설을 나누는 것이 아닌 세 욕구가 모두 충족됐을 때를 자기결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세부 가설을 나누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구하겠다.

2.4. 창업의도

Ajzen(1991)은 의도를 하고 싶은 행동을 실제 하려는 의도 수준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는데, 의도는 사람들이 자각하는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미래에 나타나게 될 기대되는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도가 바탕이 된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s)는 창업을 위한 첫 단계로써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한 토대의 역할 때문에 창업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창업 행동과 창업의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는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과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과 Hallam et al.(2014)의 ACE(A Model for Accelerating Collegiate Entrepreneurship) 모델이 있다(한미경, 2022. 재구성).

이러한 창업의도는 개인의 성격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조사하려는 시도에서 발전하였다. Crant(1996)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부터 성격과 기업가정신을 연결시키는 연구에 대한 비판이 늘었으며, 그로 인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후로 성격 특성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거의 발표되기보단 창업가적 잠재력, 창업 동기와 같은 창업 과정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동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Crant는 주도성(적극적인 성격) 척도가 성격 특성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 성격이 창업의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Crant(1996)는 기업가정신의 구체적인 전략과 주제(예: 새로운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의 차이를 두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사업을 소유할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판단’으로 창업의도를 정의하였다.

또한 Krueger(1993)가 기업가적 의도가 새로운 조직의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주장한 것과 Gartner et al.(1994)이 기업가정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한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창업의도를 발달해가는 장기적인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업 창업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로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자기결정성 등과 같은 본 연구의 타 요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도성을 창업의도와 연관지은 Crant의 정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발전시켜, 창업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장래에 창업을 하려는 계획과 그 정도를 창업의도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III. 연구 설계

3.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농산업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의 영향력을 탐구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창업환경을 인지된 장벽과 인지된 지원으로 구분하고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를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기결정성 정도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창업환경 및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가 자기결정성 정도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결정성 정도와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을 독립변수로, 자기결정성 정도를 조절변수로,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조절모형을 기반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창업환경의 인지된 지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창업환경의 인지된 장벽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창업역량의 창의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창업역량의 문제해결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5: 창업역량의 의사소통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6: 창업역량의 마케팅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7: 창업역량의 사업계획서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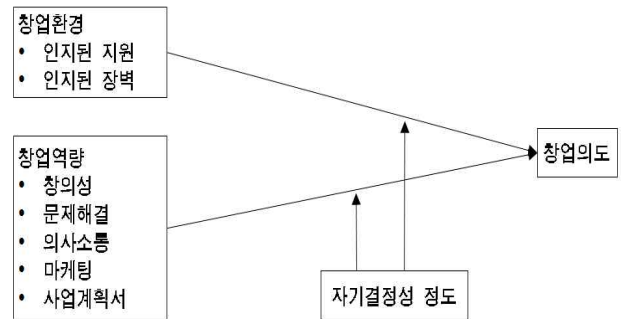
가설 H2: 자기결정성 정도는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1: 자기결정성 정도는 창업환경의 인지된 지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2: 자기결정성 정도는 창업환경의 인지된 장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3: 자기결정성 정도는 창업역량의 창의성이 창업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4: 자기결정성 정도는 창업역량의 문제해결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5: 자기결정성 정도는 창업역량의 의사소통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6: 자기결정성 정도는 창업역량의 마케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H2.7: 자기결정성 정도는 창업역량의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위 가설을 기반으로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자기결정성 정도의 조절효과를 추론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맞는 실증적 연구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농산업 예비창업자 중 농산업 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온·오프라인 농산업 커뮤니티 활동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총 302건의 설문조사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성실하지 않은 49건을 제외한 253건을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Ver.25.0과 PROCESS macro v4.2를 사용하였다. SPSS를 이용한 빈도분석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측정변수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변수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측정하였고, 다중회귀분석으로 연구가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PROCESS macro의 단순 조절모형인 Model 1을 이용하여 조절효과 검증과 조절변수의

값에 따른 독립변수의 조건부효과와 John-Neyman기법을 이용한 조절변수의 유의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조절모형인 Model 1을 이용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구성개념은 실제로 관찰되거나 추상적으로 이해되는 일련의 특성 또는 추상적 의미이며 특정 이론이나 연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개념이며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개념 혹은 구성개념을 경험적이고 가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원래의 속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변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이훈영, 2012). 조작적 정의는 연구목적과 측정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조작적 정의 중 연구에서 변수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도록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표 2>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하위변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독립 변수	창업 환경	인지된 지원	예비 창업자의 개인적인 창업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와 별개로, 예비 창업자가 환경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한 정도라고 정의	Luthje & Franke, (2003)
		인지된 장벽		
	창업 역량	창의성	성공적인 농산업 창업을 위해 필요한 예비 창업자의 지식, 능력, 기술이라고 정의	신향숙 (2021)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사업계획서		
조절 변수	자기 결정성 정도	자율성	외부로부터의 통제나 압력이 없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	이성택 (2018)
		유능성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	
		관계성	자신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	
종속 변수	창업의도		예비 창업자가 장래에 스스로 기업을 설립하려는 계획과 그 정도라고 정의	조영주 이보영 (2016)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창업환경의 측정을 위하여 인지된 지원 5문항, 인지된장벽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창업환경의 측정을 위하여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사업계획서 각각을 5문항씩 총 25문항을 구성하였고, 조절변수인 자기결정성정도의 측정을 위하여 9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의 측정을 위하여 5문항을 구성하여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배경변수 별 특성에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소재지, 월 소득, 직업, 창업 예정 시점, 자금조달 수단, 예상 주요 창업업종 등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3.4. 조사대상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253명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소재지, 월 소득, 직업, 향후 창업 예정 시점, 자금조달 수단, 창업시 예상 주요 업종 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와 같이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177	70
	여성	76	30
연령	20대	29	11.5
	30대	36	14.2
	40대	61	24.1
	50대	111	43.9
	60대 이상	16	6.3
결혼 여부	기혼	185	73.1
	미혼	68	26.9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	9.1
	전문대학 졸업	24	9.5
	대학교 졸업	94	37.2
	대학원(재학) 졸업	112	44.3
소재지	서울 경기 인천	206	81.4
	대전 세종 충남 충북	17	6.7
	광주 목포 전남 전북	3	1.2
	부산 대구 강원 경북 경남	17	6.7
	강원	10	4.0
	제주		
월 소득	200만원 미만	37	14.6
	200~300만원 미만	42	16.6
	300~500만원 미만	51	20.2
	500~700만원 미만	51	20.2
	700~1,000만원 미만	30	11.9
	1,000만원 이상	42	16.6
향후 창업 시점	1~2년	29	11.5
	3~5년	47	18.6
	6~7년	59	23.3
	8~10년	50	19.8
	11~20년	31	12.3
	21년 이상	37	14.6
주요 자금조달 수단	자신	131	51.8
	부모	13	5.1
	친구	1	0.4
	투자사	17	6.7
	정부지원	91	36
	기타		
창업 시 예상 주요 업종	직물 재배	72	28.5
	농식품 가공	33	13
	농식품 유통	74	29.2
	농기계 관련 산업	10	4
	농업 컨설팅 관련	57	22.5
	기타	7	2.8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177명(70%), 여성이 76명(30%)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11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61명(24.1%)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에 따라 보면, 기혼자가 185명(73.1%)로 더 많았으며, 미혼자는 68명(26.9%)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재학) 졸업이 112명(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94

명(37.2%)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이 206명(8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이 17명(6.7%)이었다. 월 소득별로는 500~7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이 각각 51명(2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000만원 이상이 42명(16.6%)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창업 시점별로는 6~7년 후가 59명(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5년 후가 47명(18.6%)이었다.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는 자기조달이 131명(5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부지원이 91명(36.0%)로 나타났다. 창업 시 예상 주요 업종별로는 작물 재배가 72명(2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식품·유통이 74명(29.2%)으로 조사되었다.

3.5.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타당도는 측정이 의도한 구성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KMO 측정치가 .0.9 이상(.908)으로 산출되어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사용된 데이터는 요인분석에 매우 적합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변수 쌍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수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표 4>에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에서 추출된 요인에 속한 변수들의 평균을 요인 값으로 산정하여 가설 검증에 사용하였다.

<표 4>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2	3	4	5	6	7	8	9
사업계획서3	.842	.077	.232	.145	.176	.112	.166	.152	.048
사업계획서4	.819	.101	.212	.169	.126	.083	.126	.229	.066
사업계획서5	.803	.144	.243	.118	.172	.112	.112	.135	.057
사업계획서1	.796	.109	.220	.108	.113	.128	.074	.212	.062
사업계획서2	.785	.079	.227	.170	.211	.088	.171	.216	.065
자기결정성4	.066	.754	.050	.172	.095	.179	.052	.102	.052
자기결정성2	.093	.708	.141	.159	.081	.141	.059	-.023	.049
자기결정성3	.009	.703	.131	.137	.045	-.086	.071	.025	.067
자기결정성5	.051	.690	.024	.206	.088	.151	.082	.022	.125
자기결정성6	.172	.641	-.037	.173	.039	.290	-.013	.120	.137
자기결정성9	.058	.628	.054	.099	.120	.190	.041	.123	.001
자기결정성7	.167	.623	.011	.106	.175	.269	-.004	.016	.154
자기결정성1	-.026	.612	.223	.005	.118	-.144	.226	.040	.158
창업의도2	.273	.144	.829	.127	.132	.110	-.009	.150	.076
창업의도1	.097	.101	.828	.103	.120	.172	-.026	.175	-.082
창업의도3	.255	.090	.824	.094	.141	.060	.056	.178	.044
창업의도4	.221	.042	.813	.074	.147	.067	.165	.127	.015
창업의도5	.230	.184	.731	.102	.213	-.040	.143	.042	.036
문제해결2	.156	.182	.113	.786	.120	.185	-.022	.017	.048
문제해결3	.022	.139	.075	.781	.081	.210	.005	.089	.075
문제해결1	.106	.146	.111	.682	.249	.201	.100	.139	-.066

문제해결5	.151	.257	.033	.677	.052	.148	.075	.256	.013
문제해결4	.172	.276	.094	.664	.128	-.008	.041	.002	.078
창의성1	.149	.168	.210	.110	.777	.147	.067	.176	.061
창의성2	.198	.186	.210	.140	.762	.193	.164	.038	.080
창의성3	.205	.154	.212	.161	.752	.114	.135	.186	.089
창의성4	.214	.215	.127	.397	.575	.133	.104	.089	.044
창의성5	.180	.145	.200	.485	.521	.031	.051	.110	.050
의사소통2	.046	.114	.121	.129	.051	.806	.033	.094	.015
의사소통1	.002	.132	.025	.088	.108	.776	.083	.044	.130
의사소통3	.267	.243	.118	.240	.273	.629	.053	.154	.074
의사소통5	.183	.330	.103	.258	.027	.606	.052	.097	.080
의사소통4	.279	.265	.065	.257	.306	.584	.062	.066	.029
인지된지원5	.079	.105	.110	.024	.105	.049	.824	.033	.089
인지된지원4	.078	.094	-.006	.039	.080	.026	.822	.046	.009
인지된지원3	.104	.031	.068	.053	.050	.101	.781	.139	-.076
인지된지원2	.238	.144	.064	.044	.093	.001	.697	.150	.091
마케팅2	.337	.129	.269	.172	.214	.155	.125	.702	.085
마케팅4	.350	.063	.258	.124	.182	.112	.166	.687	.093
마케팅1	.340	.156	.240	.175	.120	.152	.215	.653	.080
마케팅3	.412	.137	.255	.210	.166	.112	.145	.652	.011
인지된장벽3	.034	.085	.001	.037	.023	.144	.072	.026	.727
인지된장벽2	.160	.014	.023	.032	.195	.094	.042	.151	.685
인지된장벽4	.008	.042	.126	.006	.006	.144	.410	.052	.648
고유값	4.684	4.491	4.173	3.708	3.162	3.125	3.048	2.449	1.661
설명변량	10.646	10.206	9.484	8.427	7.186	7.102	6.927	5.565	3.774
누적설명변량	10.646	20.851	30.335	38.762	45.948	53.050	59.977	65.542	69.317

KMO 측도=.928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12028.3511, 자유도=946, p=0.000

3.6.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측정도구인 설문문항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테스트하여 얻은 결과가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내적 일관성 신뢰성으로 그 정도를 평가한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0에서 1 사이의 Cronbach alpha 계수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계수 값 1은 완벽한 내부 일관성을 나타내고 0 값은 내부 일관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Cronbach alpha를 계산하려면 계수, 항목 간 상관 행렬은 항목 집합의 내부 일관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9 이상이면 매우 우수한 신뢰도, 0.8~0.9이면: 우수한 신뢰도, 0.7~0.8이면 허용 가능한 신뢰도, 0.6~0.7이면 의심스러운 신뢰도, 0.5~0.6이면 낮은 신뢰도, 0.5 미만이면 수용할 수 없는 신뢰도로 해석한다.

따라서 Cronbach의 alpha 계수는 측정 도구 내 항목의 내부 일관성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한다. <표 5>에 제시된 분석 결과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계수는 .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5> 신뢰도 분석

구성개념	하위변인	Cronbach's α
창업환경	인지된 자원	.796
	인지된 장벽	.735
창업역량	창의성	.882
	문제해결	.855
	의사소통	.853
	마케팅	.906
	사업계획서	.949
자기결정성정도		.870
창업의도		.926

IV. 분석 결과

4.1. 상관분석

상관분석은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상관 계수는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측정한다. 상관 계수의 범위는 -1에서 +1까지이며, 여기서 -1은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 0은 상관관계가 없음, +1은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81~±1.0 범위이면 상관관계 크기가 매우 크고, ±.61~±.80 이면 크기가 강하고, ±.41~±.60이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21~±.40이면 상관관계가 약하고, ±.00~±.20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91~±1.0 범위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이일현, 2014). 상관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91~±1.0의 범위에 해당하는 상관계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선형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변수들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변수 간 상관관계

	자원	장벽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사업계획서	자기결정성	창업의도
자원	1								
장벽	.244***	1							
창의성	.498***	.208**	1						
문제해결	.317***	.151*	.642***	1					
의사소통	.365***	.210**	.588***	.667***	1				
마케팅	.480***	.220***	.596***	.568***	.564***	1			
사업계획서	.464***	.204**	.630***	.537***	.546***	.719***	1		
자기결정성	.441***	.168*	.555***	.556***	.609***	.497***	.472***	1	
창업의도	.433***	.317***	.613***	.527***	.489***	.571***	.591***	.537***	1

*p<.05, **p<.01, ***p<.001

4.2.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창업환경의 하위변수로서 인지된자원과 인지된장벽, 그리고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로서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이 농산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창업의도를 선택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VIF 값이 10보다 작은 2.48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산업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하위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SPSS는 회귀계수 산출 시 양측검증의 p값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가설이 방향성 가설인 경우에는 단측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측검정의 p값은 양측검증의 p값의 1/2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은 모두 방향성 가설이므로 SPSS에서 산출된 p값의 1/2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결혼 여부, 학력, 월 소득 및 향후 창업 시점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들 변수는 범주형 변수이나 크기 개념이 있으므로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여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조절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의 영향을 고려하는 분석 방법이다. 조절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조절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절분석은 평균 중심화와 관계없이 분석의 초점이 조절 효과에 있으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조절변수 값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을 Andrew F. Hayes의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조건부 효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조절변수의 유의 영역을 검정하기 위해서는 John-Neyman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조절 효과가 유의한 조절변수의 유의 영역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조절변수의 값이 변할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4.2.1.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론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원(B=.179 p=.003), 장벽(B=-.141 p=.008), 창의성(B=.253 p=.000), 문제해결(B=.160 p=.036), 마케팅(B=.141 p=.012) 및 사업계획서(B=.132, p=.014)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사소통(B=.007, p=.466)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환경과 의사소통을 제외한 창업역

량이 높아질수록 창업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1.1, H1.2, H1.3, H1.4 H1.6 및 H1.7은 채택되었고, H1.5는 기각되었다.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된 계수의 절대값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창업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의성($\beta = .242$)이며, 마케팅($\beta = .157$), 사업계획서/인지된지원($\beta = .154$), 문제해결($\beta = .120$), 인지된장벽($\beta =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수의 순서로 부터 창업의도에 창의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장벽이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창업역량이 창업환경보다 더 크게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 지원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창업자들이 창의성과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및 교육과정 개선,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창업자들은 창업 전 단계에서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의 전체 변량의 5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est 결과는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의도의 53.4%는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도				
	B	β	t	p	VIF
(constant)	3.515		13.809	0.000	
결혼여부	-.139	-.070	-1.308	0.096	1.462
학력	-.053	-.056	-1.072	0.142	1.432
월 소득	.048	.089	1.579	0.058	1.629
항후창업시점	-.102	-.180	-3.893	0.000	1.107
인지된지원	.179	.154	2.803	0.003	1.564
인지된장벽	-.141	-.112	-2.435	0.008	1.092
창의성	.253	.242	3.547	0.000	2.397
문제해결	.160	.120	1.812	0.036	2.278
의사소통	.007	.006	.086	0.466	2.174
마케팅	.141	.157	2.257	0.012	2.505
사업계획서	.132	.154	2.211	0.014	2.512
R ²	.534				
F	25.085***				

*p<.05, **p<.01, ***p<.001

4.2.2. 조절효과 분석

조절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변동하는지를 검증하는 분석방법이다.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모형을 통해 조절효과의 존재 여부와 정도를 파악한다. 평균중심화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서 각각의 평균값을 뺀으로써,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고 해석을 간편하게 한다. 평균중심화된 모형은 R²과 MSE값이 원 자료를 이용한 모형과 동일하므로 적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절변

수의 값이 0인 경우에는 독립변수의 순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0은 원 자료에서 실제로 나타난 값일 수 없으므로 해석이 가능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추론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창업환경과 창업역량, 조절변수인 자기결정성정도를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여 모형을 재모수화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한 조절분석은 조절효과의 유의성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 한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 방법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조절변수 값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가 조절변수 값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위계적 회귀분석으로는 어느 구간에서 유의한 조절변수의 범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절변수 값에서 우연성 요인(chance component)이 작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절변수의 전환점을 조사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역역을 구분하는 상호작용항 탐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절변수의 범위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호작용 탐색에는 자주 이용되는 방법은 특정 값 선택이다. 이 방법은 조절변수의 특정 값(조절변수의 평균값, 평균값±표준편차)을 선택하고 해당 값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조건부효과를 추론하는 과정이다.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조절변수의 값을 세 가지 레벨(저수준, 중간수준, 고수준)로 나누어 초점 예측 변수(focal predictor)의 조건부 효과(단순 기울기)를 추론하였다. 이를 위해, 저수준은 조절변수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 고수준은 조절변수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더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 조건부 효과를 추론하여, 그 결과를 추출된 자료를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JN(Johnson Neyman)방법은 특정한 값으로 인한 조절변수 값의 자의적 선택 한계를 극복하는 데 유용하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조절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조절변수 값의 유의영역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에서 더욱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4.2.2.1. 자기결정성정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통계변수, 독립변수인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을 포함하여 조절변수인 자기결정성정도를 독립변수에 추가 투입하여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율성추구, 경제적성취 및 자아성취, 창업인식, 사업가에 대한 사회적인식 및 창업기회인식, 조절변수인 직무만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검증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자기결정성정도가 추가됨으로써 1.3%가 유의하게 증가하여($p = .001 < .05$) 모형의 설명력은 54.6%이고, 자기결정성정도가 높을수록(B=.277)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기결정성정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도				
	B	β	t	p	VIF
(constant)	3.467		13.745	0.000	
결혼여부	-.149	-.075	-1.424	0.078	1.464
학력	-.043	-.045	-.870	0.193	1.442
월 소득	.048	.089	1.597	0.056	1.629
향후창업시점	-.097	-.171	-3.723	0.000	1.113
인지된지원	.152	.131	2.374	0.009	1.607
인지된장벽	-.138	-.109	-2.405	0.008	1.093
창의성	.224	.214	3.139	0.001	2.457
문제해결	.120	.090	1.356	0.088	2.349
의사소통	-.057	-.043	-.644	0.260	2.359
마케팅	.126	.141	2.039	0.021	2.526
사업계획서	.136	.159	2.303	0.011	2.513
자기결정성정도	.277	.159	2.593	0.005	2.002
R ² (F)	.546(24.101***)				
ΔR^2 (F)	.013(6.722*)				

*p<.05, **p<.01, ***p<.001

4.2.2.2. 창업환경 및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자기 결정성정도의 조절효과

창업환경 및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변수인 자기결정성정도의 독립변수 각각의 조절효과 검정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자기결정성정도의 창의성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245, p=.009), 문제해결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340, p=.002), 의사소통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348, p=.001), 마케팅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202, p=.008), 사업계획서와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281, p=.000)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지된지원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174, p=.098), 인지된장벽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B=.106, p=.316)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을 유의적으로 조절하나 창업환경과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H2.3, H2.4, H2.5, H2.6 및 H2.7은 채택되었고 H2.1과 H2.2는 기각되었다.

창의성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성정도와의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의 방향으로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문제해결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성정도와의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문제해결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의 방향으로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의사소통이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성정도와의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의사소통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부(-)의 방향으로 약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마케팅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성정도와의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마케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의 방향으로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기결정성

정도와의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의 방향으로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환경과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지 않으나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 결정이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창업 환경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결정성정도가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결정성정도의 특정 값 선택을 통하여 조건부효과를 추론하였다. 특정 값은 평균+표준편차(3.502)를 저수준으로, 평균(4.010)을 중간수준, 평균+표준편차(4.519)를 고수준으로 선택하였다. 조건부효과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유의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초점예측 변수인 창업역량의 조건부효과를 시각화시키기 위한 data를 추출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표 9> 창업환경 및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자기결정성정도의 조절효과

	창업의도						
	B	B	B	B	B	B	B
(constant)	3.420	3.465	3.392	3.391	3.323	3.388	3.356
결혼여부	-.131	-.150	-.148	-.149	-.129	-.138	-.139
학력	-.042	-.043	-.030	-.026	-.016	-.032	-.033
월 소득	.050	.046	.043	.044	.041	.045	.052
향후창업시점	-.100	-.096	-.098	-.103	-.100	-.097	-.099
인지된지원(x ₁)	.128	.155	.148	.166	.152	.151	.145
인지된장벽(x ₂)	-.131	-.163	-.132	-.136	-.130	-.132	-.127
창의성(x ₃)	.213	.223	.198	.202	.204	.211	.217
문제해결(x ₄)	.120	.113	.095	.074	.094	.082	.078
의사소통(x ₅)	-.047	-.050	-.034	-.040	-.064	-.030	-.029
마케팅(x ₆)	.126	.127	.111	.098	.113	.101	.124
사업계획서(x ₇)	.131	.137	.136	.131	.133	.139	.104
자기결정성정도(m)	.256	.276	.216	.244	.262	.224	.182
x ₁ x m	.174						
x ₂ x m		.106					
x ₃ x m			.245**				
x ₄ x m				.340**			
x ₅ x m					.348**		
x ₆ x m						.202**	
x ₇ x m							.281***
R ² (F)	.552 (22.622***)	.548 (22.325***)	.559 (23.319***)	.564 (23.741***)	.567 (24.080***)	.560 (23.363***)	.570 (24.365***)
ΔR^2 (F)	.005 (2.755)	.002 (1.008)	.013 (6.866**)	.017 (9.350**)	.021 (11.350**)	.013 (7.124**)	.023 (13.031***)

*p<.05, **p<.01, ***p<.001

<표 10>에 창업의도에 대한 창업역량의 조건부효과를 제시하였다. 창의성은 자기결정성 정도의 중간수준과 고수준, 문제해결은 고수준, 의사소통은 저수준, 마케팅은 중간수준과 고수준, 사업계획서는 중간수준과 고수준에서 조건부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 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의 조건부효과(독립변수와 창업의도 간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 정도는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 중 강화작용을 한다.

의사소통의 경우 저수준서 부(-)의 효과가 나타나 자기결정성 정도가 커질수록 의사소통의 조건부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 정도는 의사소통과 창업의도 간의 조절효과 중 완화작용을 한다.

JJN 방법에 의한 창의성의 조절효과 유의영역의 전환점은 3.718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 정도가 3.718 이상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 정도의 척도 ‘그렇다’ 이하에서는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 데이터 중 79.051%만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의 조절효과 유의영역의 전환점은 2.680과 4.214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 정도가 2.680 이하에서는 부(-)효과가 4.214 이상에서 정(+)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기결정성이 완화작용을 높은 경우에는 강화작용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본의 3.95%가 완화작용을 30.830%가 강화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유의영역의 전환점은 3.561과 4.808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 정도가 3.561 이하에서는 부(-)의 조절효과 4.808 이상에서는 정(+)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15.415%가 완화작용을 9.486%가 강화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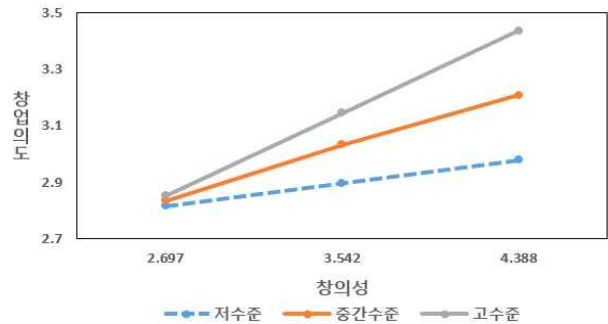
마케팅의 조절효과 유의영역의 전환점은 4.012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 정도가 4.012 이상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 정도의 척도 ‘그렇다’ 미만에서는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성 정도가 대체로 높을 때만 자기결정성이 마케팅과 창업의도 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본데이터 중 35.573%만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서의 조절효과 유의영역의 전환점은 3.749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 정도가 3.749 이상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 정도의 척도 ‘그렇다’ 미만에서는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성 정도가 대체로 높을 때만 자기결정성이 사업계획서와 창업의도 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본데이터 중 79.051%만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창업의도에 대한 창업역량의 조건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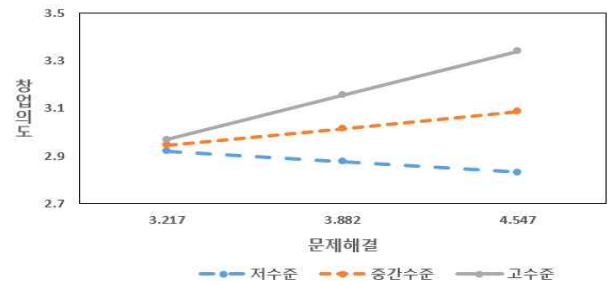
자기결정성정도	효과	LLCI	ULCI
창의성			
저수준	.097	-.071	.265
중간수준	.222	.083	.360
고수준	.346	.180	.512
문제해결			
저수준	-.067	-.276	.143
중간수준	.106	-.066	.278
고수준	.279	.079	.478
의사소통			
저수준	-.208	-.401	-.015
중간수준	-.031	-.203	.141
고수준	.146	-.062	.355
마케팅			
저수준	.018	-.127	.163
중간수준	.120	.000	.241
고수준	.223	.083	.363
사업계획서			
저수준	.041	-.090	.172
중간수준	.185	.083	.287
고수준	.329	.202	.455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라 창의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건부효과의 그래프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결정성 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의 정(+)의 조건부효과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 정도는 조절효과 중 강화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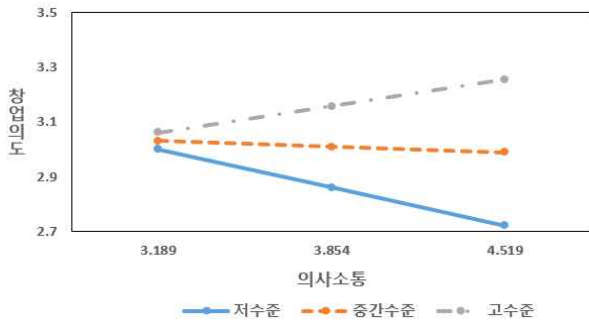
<그림 2> 창업의도에 대한 창의성의 조건부효과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라 창의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건부효과의 그래프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자기결정성 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의 정(+)의 조건부효과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 정도는 조절효과 중 강화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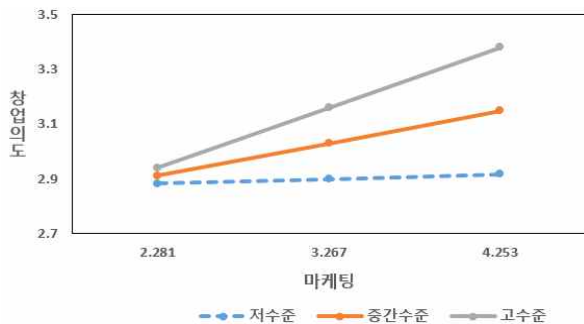
<그림 3> 창업의도에 대한 문제해결의 조건부효과

자기결정성정도에 따라 의사소통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그래프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의사소통의 부(-)의 조건부효과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는 조절효과 중 완화작용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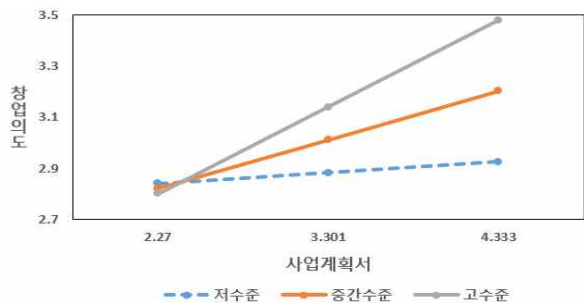
<그림 4> 창업의도에 대한 의사소통의 조건부효과

자기결정성정도에 따라 마케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그래프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마케팅의 정(+)의 조건부효과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는 조절효과 중 강화작용을 한다.



<그림 5> 창업의도에 대한 마케팅의 조건부효과

자기결정성정도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의 그래프가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사업계획서의 정(+)의 조건부효과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성정도는 조절효과 중 강화작용을 한다.



<그림 6> 창업의도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조건부효과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농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기결정성정도를 조절변수로 하여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창업환경의 인지된지원과 인지된장벽, 창업역량의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창업역량의 의사소통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창의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지원 정책 수립에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창업자들의 창의성을 강화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환경의 인지된지원 및 인지된장벽과 농산업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의 수준은 창업환경과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의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와 창업의도 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창의성, 문제해결, 마케팅 및 사업계획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의 방향으로 강하게 하는 강화작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결정성정도가 커질수록 의사소통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부(-)의 방향으로 약해지는 완화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정도는 창업역량과 농산업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창업의도에 대한 창의성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해지는데, 이는 자기결정의 정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동기부여가 되고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한 창업기회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자기 결정권을 가진 개인이 창업기회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성공을 위해 장벽을 식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창업의도에 미치는 의사소통의 영향은 부(-)의 방향으로 약해지며, 이는 자기결정이 높은 개인이 창업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때문에 자기 결정력이 높은 개인이 창업기회를 추구할 때 외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덜 의존하고 내부 동기와 자기효능감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기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마케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결정이 높은 개인일수록 창업의도 의사결정에서 마케팅 전략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자기 결정력이 높은 개인들 사이에서 마케팅이 창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업계획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 결정력이 높은 개인이 창업 기회를 추구할 때 계획 및 전략적 사고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는 창업역량과 농산업 창업의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기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자기 결정력을 가진 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덜 받고, 마케팅 전략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창업 기회를 추구할 때 계획 및 전략적 사고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산업 창업을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정책 입안자, 교육자, 창업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구모형 설정에 따른 분석 결과를 통해 농산업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도가 어떻게 유발되거나 저해되는지, 변수 간에는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더 잘 이해함으로써 농산업 창업가 육성 및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모형에서 창업환경의 인지된 지원과 인지된 장벽을 독립변수로 통합함으로써 외부요인이 창업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타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였으며, 예비창업자가 창업환경의 객관적 특성을 인지한 공부정의 정도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결정성 정도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주지 못하였다. 이는 농산업 창업환경의 객관적 특성을 예비창업자가 인지하는 정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해당 연구를 통해 실제 창업환경을 우수하게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 방향성과 필요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농산업 창업 관련 연구 동향에서 채택되지 않던 자기결정성 정도를 조절변수로 모델에 채택하여, 농산업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연구하는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자기결정성 정도가 갖는 의의가 농산업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프레임워크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서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존과 달리 다양한 삶을 영위하고자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비창업자의 창업환경 인식 정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별개로,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 정도’에 의해 조절되는 ‘창업역량’의 중요성 역시 알 수 있었다. 이는 설병문(2020)의 연구에서 재배·생산 중심의 기술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기업 성장에 요구되는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단순하게

창업환경을 우수하게 구축하거나, 창업가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만을 하는 것이 아닌 예비창업자의 창업환경 인식을 개선하고 자기결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연계성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조사 대상 그룹의 특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을 포함하도록 연구 범위를 확장시켜 농산업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도록 권고한다. 둘째, 창업환경과 창업역량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변수가 절대적인 측정항목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탐색하는 향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정도를 조절변수로 사용했으나 제 삼의 매개변수를 도입한 매개모형의 접근을 제안한다. 또한 새로운 매개변수와 조절변수가 포함된 조건부 과정모형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자기결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미니이론인 인지평가이론 대신 인지평가이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유기적통합이론을 차용하여 자기결정성 정도를 측정하거나, 기존의 모델에서 자기결정성 정도를 인지평가이론과 유기적통합이론으로 분리하는 등 다양한 연구모형을 파생하여 추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농산업 성장에 벤처창업이 미치는 원리를 더욱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촌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청년농 유입을 흔히 떠올리며, 실제로 정책 역시 관련된 내용으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과 달리,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청년보다는 40·50대의 응답 비율이 68%로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농산업에 진입하는 비율이 낮았던 미국과 다른 한국만의 농산업 유입 특성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가 연구에서는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구분하여 집단 분석함으로써 서로 어떻게 다른 특성을 갖는지 연구함으로써 한국에 가장 적합한 유입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강병승(2020). *시니어의 창업역량과 창업지원이 창업 효능감 기회 인식 그리고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김나량·홍순구·이현미(2014). 근거이론에 기반한 청년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벤처창업연구*, 9(3), 33-45.
- 김성환·복경수·박재춘(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15-26.
- 김영태(2021). *시니어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의 기능별 조절효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김정수(2022). 조리외식전공 대학생의 외식 창업자역량이 창업준비행동,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25(5), 83-105.
- 설병문(2020). 근거이론접근법에 기반한 농식품분야 창업교육현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15(3), 33-46.
- 신향숙(2021).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 기업가정*

- 신, 그리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양경애·하규수(2020). 중장년층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4), 45-55.
- 양준환(2015).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30(1), 25-45.
- 이성택(2018).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활용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결정성 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이윤석(2021). 대학생의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인숙·김외순·나영아(2013). 청년사업가를 위한 성장요인이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9(4), 25-39.
- 조영조·이보영(2016). 사회적 환경이 대학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4), 17-25.
- 최대수·성창수(2017). 대학생의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12(1), 101-109.
- 편지은(2022).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 농업 인력 부족과 농촌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이슈와논점 1966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한미경(2022).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홍정기·허철무(2022). 정보기술 수용성과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이 시니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4), 173-191.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 Boyatzis, & Richard, E.(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Wiley.
- Cho, Y. J., & Lee, B. Y.(2016). A study on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17-25.
- Choi, D. S., & Sung, C. S.(2017). Effe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T Competency, Creativity Competency, Social Competency, Market Perception Competen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1), 101-109.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Cranwell, M. R., Kolodinsky, J. M., Donnelly, C. W., Downing, D. L., & Padilla-Zakour, O.(2005). A Model Food Entrepreneur Assistance and Education Program: The Northeast Center for Foo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Food Science Education*, 4(4), 56-65.
- Gartner, W. B., Shaver, K. G., Gatewood, E., & Katz, J. A.(1994). Finding the Entrepreneur i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5.
- Hallam, C., Leffel, A., Lynda, Y. D. I. V., & Agrawal, M.(2014). Accelerating Collegiate Entrepreneurship (ACE): The Architecture of a University Entrepreneurial Ecosystem Encompassing an Intercollegiate Venture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 Entrepreneurship*, 26(2), 95-116.
- Han, M. K.(2022). *Research on Factors that Influence Potential Entrepreneurs' Intentions of Business Cr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business creation's effect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Hong, J. K., & Heo, C. M.(2022). The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and Digital Media Utilization Capability on Senior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7(4), 173-191.
- Karlsson, T., & Honig, B.(2009). Judging a business by its cover: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new ventures and the business pla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1), 27-45.
- Kang, B. S.(2020). *Impacts of Seniors' Entrepreneur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on Entrepreneurship Efficacy, Opportunity Awareness, and Startup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 Kim, J. S.(2022). Effect of Culinary & Foodservice Major University Students' Restaurant Business Entrepreneurship on Their Business Start-up Preparation Behavior and Start-up Intention: Self-efficacy Control Effect.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25(5), 83-105.
- Kim, N. R., Hong, S. G., & Lee, H. M.(2014). Revitalizing the Young Venture Entrepreneurship through Grounded Theor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3), 33-45.
- Kim, S. H., Bok, K. S., & Park, J. C.(2015).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5-26.
- Kim, Y. T.(2021). *The Effect of Senior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 and Entrepreneurial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Krueger, N.(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
- Lee, I. S., Kim, O. S., & Rha, Y. A.(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Young Entrepreneurs' Growth Factors on Entrepreneurial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nd Foodservice. *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19(4), 25-39.
- Lee, S. T.(2018). *An Influence on Onlin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latform Utilization to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Self-Determination Degree*.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Lee, Y. S.(2021).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Attitud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 Lovgren, A., Ross, B. R., Leschewski, A., & Peterson, H. C.(2020). Do Entrepreneurial Assistance Programs Create Value for Agri-Food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10(1).

- Luthje, C., & Franke, N.(2003). The 'making' of an entrepreneur: testing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engineering students at MIT. *R&D Management*, 33(2), 135-148.
- Mishra, A. K., & El-Osta, H. S.(2016). Determinants of decisions to enter the U.S. farming sector. *Journal of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48(1), 73-98.
- Mitchelmore, S., & Rowley, J.(2010).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 literature review and development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6(2), 92-111.
- Peake, W. O., & Marshall, M. I.(2009), Uncovering What Helps Entrepreneurs Start Businesses: Lessons from Indiana. *Journal of Extension*, 47(2), 1-10.
- Pyeon, J. E.(2022). *Major Response Policies and Future Challenges to Changing Farm Demographics: Focused on addressing the agricultural workforce shortage and rural depopulation crisis(Issues and Perspective No.1966)*.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The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eol, B. M.(2020), Exploratory Study on the Phenomena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Food and Agriculture Sectors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3), 33-46.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 *In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Shin, h. S.(2021). *Effects of Active Senior's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n Entrepreneurial Efficacy,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 Teixeira, A. A., & Pereira, I.(2019). The perceived usefulness of the business plan in form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perspective of alumni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Education*, 2(3), 91-133.
- Watson, K., & McGowan, P.(2019). Rethinking competition-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ducation+Training*, 62(1), 31-46.
- Yang, J. H.(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Contextu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 Business Education Review*, 30(1), 25-45.
- Yang, K. A., & Ha, K. S.(202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ial of Middle -Aged and Older Adul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45-55.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re-entrepreneurs in Agricultural Industry: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Degree of Self-determination

Eun Hee Byun*

Chul Moo He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etting degree of self-determina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for pre-entrepreneur of agriculture industry. The entrepreneurial environment was divided into perceived support and perceived barriers, and the sub-variable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were set as creativit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marketing, and business plan. 25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SPSS v25.0 and Process macro v4.2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ived support and perceived barriers of the entrepreneurial environme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Creativity, problem solving, marketing and business plan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ut the effect of communication was non-significant. Second, the degree of self-determination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upport, barrie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means that the level of self-determination may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the degree of self-determination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marketing and business plan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pecifically, as the degree of self-determination increases, the size of the influence of creativity, problem solving, marketing, and business pla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plays a role of strengthening in a positive direction. On the other hand, as the degree of self-determination increases, the degree of self-determination, which weaken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uture research will require exploration of other factors that can explain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entrepreneurial capacity, and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analyz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through conditional process models that include new mediating and moderating variables.

Keywords: Start-up of agricultural industry, Entrepreneurial environment, Entrepreneurial competency, Degree of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irst Author,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enture Information Management, Ph.D., dbsk0101@nate.com

**Corresponding Author,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enture Information Management Professor, cmheo@hoseo.edu